

2025 새해 이렇게 **명현관 해남군수**

“농어업 신산업 전환,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



전국 최대 경지면적·청정 바다 활용 ‘농어촌수도 해남’ 실현 기회·교육발전, 양대특구 지정 성과 인구유입 계기 만들 터

“해남의 장기성장동력 육성의 핵심사업으로 ‘농어촌수도 해남’ 전략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9일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민선8기 핵심 과제로 20년, 30년 미래먹거리를 책임질 장기성장동력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해 오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군 주력산업인 농어업의 미래산업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어촌수도 해남”은 농어업 분야의 미래성장 의지를 담은 비전으로, 지금까지 해남 농어업의 역량을 총결집해 농림해양수산산업의 고도화와 신산업 전환, 지역미래성장의 동력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명 군수는 “해남의 주력산업인 농어업은 전국 최대의 경지면적과 청정 땅끝바다, 선도적인 농어업인이 조화를 이뤄 대한민국의 식량안보와 국민들의 안전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다”며 “2025년에는 농어업 분야의 미래성장 의지를 담아 ‘농어

촌수도 해남’의 비전을 수립하고, 군정의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와 농업연구단지 등을 핵심거점으로 해 수산기자재클러스터, 김치원료공급단지, 탄소중립 에듀센터, 녹색융합 클러스터 조성 등 주요 국책사업들을 적기에 차질없이 추진하여 기후변화대응과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미래산업으로서 농어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또 쌀과 배추, 고구마, 감 등 4대 농산물에 대한 브랜드 가치 제고와 저탄소·항암·항당뇨 등 특화사업의 체계적 발굴, 경쟁력있는 신작목·신기술의 육성을 통해 고부가가치·고소득의 농산물 기반을 구축하고, 변화하는 소비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안전 먹거리 가공 및 온·오프라인 유통 개선, 체험·관광을 결합한 융복합화, 수출의 확대를 지속가능한 미래 농어업의 기틀을 마련하

는 구상이다.

그는 기회발전특구 데이터센터파크, 해상풍력배후단지, RE100 산업단지 등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기업유치와 신산업 육성의 메카로 육성하고,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교육과 보육, 일자리를 연계한 인재양성과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인구유입의 전략을 쌍끌이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3000억원 규모의 공모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대한 기대도 숨기지 않았다. 올해부터 주거단지의 조성 본격화되는 등 교육과 의료, 문화 등 정주여건을 확충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한 고속철도 연결 논의도 올해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 계획이 수립되는 만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성사될 수 있도록 각계의 의지를 모아 나갈 방침이다.

명 군수는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는 사업은 하루아침에 성과를 내기는 어렵지만, 미래세대와 해남발전의 장기 비전을 바라보면 누군가는 꼭 해야만 하는 사업들”이라며 “군민과 소통하고 협력하

면서 기반을 꾸준히 쌓아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장기화하고 있는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지난해 말부터 지역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을 조기에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올해는 연중 소상공인 경영 안정망 구축과 계층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제공, 전국 군 단위 최대 규모인 해남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등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해남형 경제 활성화 전략에 속도를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생활인구 증대와 머무르는 관광 기반 구축을 위해 권역별 관광개발사업과 문화관광 상품 개발, 스포츠마케팅 기반 확충 등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장기적인 경기불황과 국내외 불안정한 정세가 녹록치는 않지만 어려운 때일수록 더 큰 용기를 가지고 역풍장범(逆風張帆)의 미래를 열어나가겠다”라며 “위기의 바람 앞에서 더 큰 성장의 기회를 열어 으뜸해남의 비전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한해를 만들겠다”라고 각오를 다졌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목포시 시내버스 공영화 첫발...노선체계 전면 개편

1개 권역 시 직영·3개 권역 위탁 20개 노선 15개로...운행버스 줄여

목포 시내버스가 공영버스로 새롭게 출발했다. 목포시에 따르면 시내버스는 2021년 버스회사 휴업 신청, 2022년 운수종사자 파업, 2023년 연료비 체납에 따른 운행 중단으로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등 시가 개선해야 할 장기 과제 중 하나였다. 시는 2023년 2월 시내버스 운행 재개 이후 근본

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시민 공론화를 거쳐 목표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 과정을 거쳐 공영버스 체계를 도입했다. 민간이 독점하고 있던 시내버스 노선권을 공영화하고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전면적인 노선체계를 개편했다.

기존 20개 노선을 15개 노선으로, 운행 버스는 137대에서 128대로 축소했다.

시가 1개 권역의 2개 노선은 직영하고, 나머지 3개 권역의 13개 노선은 민간 위탁 사업자가 운영한다.

이를 통해 시내버스의 전면 운행 중단을 구조적으로 막는 공영버스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시는 친환경 전기 저상버스 도입 및 운행, 발광다이오드(LED) 안내판이 부착된 버스 운행, 버스정보시스템(BIS) 고도화, 스마트 승강장 확대 등 더 나은 공영버스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시민과 함께 만든 목표형 대중교통 시스템 기반의 공영버스는 전국 최초이며 전국 여러 지자체가 주목하고 있는 선도적인 정책”이라고 말했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신안 분재정원 애기동백 숲길.

신안군, ‘겨울꽃 축제’ 내달 2일까지 연장

신안군이 ‘섬 겨울꽃 축제’를 애기동백꽃 절정 기간을 반영해 다음달 2일까지 연장한다. 신안군은 1004섬 분재정원 내 4천만 송이의 애기동백꽃 개화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축제 종료를 아쉬워하는 관람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자 연장을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분재정원을 방문하면 3km의 걸쳐 조성된 애기동백 숲길을 따라 붉은 동백꽃을 감상할 수 있다.

겨울 추억을 담을 수 있는 포토존, 엽서 쓰기, 소원지 쓰기와 저녁노을 미술관에서 소원 편지 쓰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축제 기간 빨간색 옷(상하의)을 착용한 관람객은 입장료 혜택 이벤트를 받을 수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섬 겨울꽃 축제에서 아름다운 애기동백꽃과 함께 특별한 순간을 즐기고, 새로운 한 해의 희망을 담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영암군, 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 18억원 돌파

전년비 전수 81%·금액 46% ↑

영암군은 2024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이 1만 5967건에 18억 600만원을 기록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전년비 기부건수는 81%, 기부금액은 46% 증가했으며 2년 연속 전남 기초지자체 2위를 차지했다.

이같은 결과는 특색 있는 기부사업 시행, 지정 기부사업 발굴, 민간플랫폼 도입 등 전국 고향사랑기부제도를 선도한 노력의 결실이라고 영암군

은 평가했다.

영암군은 지난해 초부터 전국 기부자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선제적 기부사업을 진행했다. 20년 만에 ‘고향사랑 소아청소년과’를 개원해 2시간 넘게 인근 도시로 원정 진료를 다니던 소아청소년과 부모의 불편을 덜었다.

또 어르신 근육 감소증 예방교실 ‘영당이 기억 상실증 회복 프로그램’, 마을 어르신 읍내 영화관 나들이 ‘엄니 영암 극장 가시게’도 진행해 고향사랑기부금의 가치 투자를 선도하며 전국의 이목을 집

중했다.

여기에 더해 2023년부터 ‘영암맘 안심프로젝트’, ‘고향사랑 소아청소년과 운영’ 등 지정기부금을 시행해 목표금액을 조기달성하고, 민간플랫폼 ‘위기브’를 활용한 모금 진행으로 지역사회 안팎의 관심을 끌었다.

군은 올해 고향사랑기부금 상한액이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되는 것에 대비해 달래품 추가 개발, 기부자 예우, 시기별 맞춤 홍보 등 새로운 정책으로 고향사랑기부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올해도 기부자들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기부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6-중-166833호] [광고]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공공폐수·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건설원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질소처리용 중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중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응결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 고효율 STS membrane 불 산기관 (TMS-600+)
- 판형 산기관 (TMP-1000)
- 유기탄소원: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침강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조, 슬러지 건조기 등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1997 태림인드스트리 법인설립
2011 수출박람회, 수출유공자 수상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2016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보편중소기업인)
2019 환경부장관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2022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선정
2023 국제청 모범업체 표창

아름다운 자연환경 창조!
태림인드스트리

본사, 공장) 58223 전남 나주시 남평읍 동촌로 19
Tel) 061-336-2588 Fax) 061-336-2587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